

피부 건강의 마중물, 포스트 코로나 화두 ‘건강’

천안불당 차안박피부과 김현조 대표 원장(피부과 전문의)

코로나19로 인해 얻은 것과 잃은 것을 구분하는 것은 아직은 시기상조다. 하나씩 일상을 찾아가는 과정처럼 피부에 대한 접근법도 ‘건강’에서 시작된다.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고 건강한 체력을 유지할 때 피부도 건강하고 맑아집니다. 이제 OTT 시청 습관을 과감하게 뿌리치고 충분한 양의 비타민과 미네랄을 복용하면서 운동하고, 피부 주치의의 통째 체계적으로 관리를 받는다면 금상첨화입니다.” 천안불당 차안박피부과 김현조 대표 원장에게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피부관리를 질문했더니 돌아온 답변이다. 건강한 체력이 피부 건강의 마중물. 홈트, 레이어드 홈으로서의 공간에서 걸어 나와 건강을 위해 나아가는 것이 지속적인 피부 건강을 위한 왕도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지금, 피부과학의 현장에서 그리고 환자를 마주하는 의료진으로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는 김현조 대표 원장과의 일문일답을 통해 피부 건강의 방향성을 잡아 보는 시간을 가졌다.



마스크 해제 이후 우선 순위로 해결할 부분은?

마스크를 쓸 때 노출된 이마, 눈 부위에 맞춘 시술이 많았다면 이제 는 얼굴 전체의 밸런스를 고려하여 치료하는 시술이 필요하다. 마스크에 가려져 있던 여드름, 기미, 잔주름 등 개개인에 맞는 치료를 해야 할 시기다. 우선 순위는 개개인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피부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 후 결정한다.

안티에이징에 대처 하는 자세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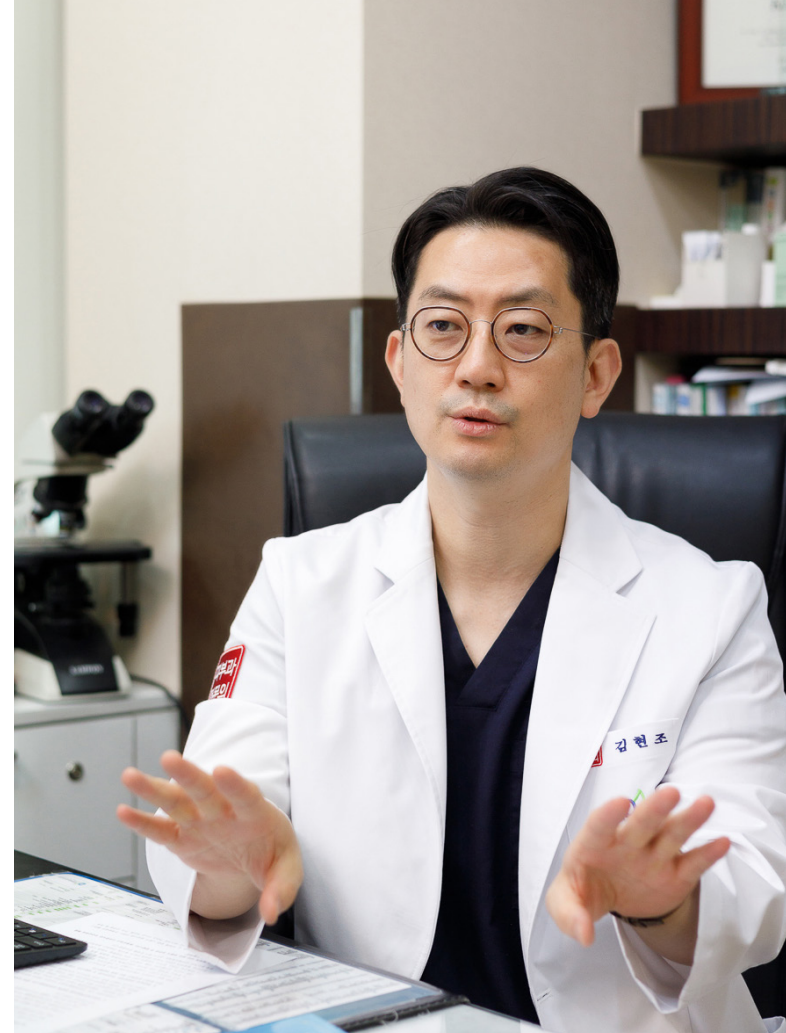
의료진과의 면밀한 상담이 가장 중요하다. 환자마다 필요한 항노화 시술이 다르다. 따라서 환자 개개인에 필요한 시술부터 순차적으로 받아 나가야 한다. 항노화 시술 영역은 광범위하다. 항노화 즉 안티에이징의 범주엔 종합적으로 기미, 잔주름, 넓어진 모공, 목 주름, 여드름 흉터 등이 포함된다. 항노화는 수명 연장이 현실화된 시대에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할 치료의 방향인 것이다.

최근 발간된 미용피부과학용어집 참여의 의미는?

1년간 참여한 『미용피부과학용어집』은 우리말 미용피부 과학 용어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여 논문, 원고 기고, 환자에게 설명 시 도움이 되고 자 편찬 위원으로 참여했다. 진료 현장에서 의료진마다 원어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혹은 임의로 우리말로 작명하는 경우 어렵고 의미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아 정비가 필요했던 게 사실이다. 환자와 의사가 눈높이를 맞춰 소통하는데 작은 힘이 되길 기대한다.

스킨 부스터 연구 강의를 진행 중이다. 환자가 최우선으로 숙지해야 할 부분은?

스킨 부스터로 통용되는 피부 기능 강화제를 주사하여 부작용이 발생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피부 도포와 주사의 차이인데 스킨 부스터 제품은 의약품이나 의료기기가 아니라 화장품으로 허가받은 경



우도 있다. 이 경우 주사제로 피부에 주입할 경우 부작용 등 안전성 문제가 대두된다. 오남용 되는 현장에서의 최대 피해자는 환자일 수밖에 없다. 이에 정비하는 차원에서 연구를 진행했고, 피부 기능 강화제에 대한 정의를 정리하게 됐다. 피부 기능 강화제 즉 스킨 부스터를 시술 받게 된다면 주사제인지 화장품인지를 확인해 보고 진행 하길 권한다. 이게 첫 시작이다.



김현조 피부과 전문의(대표 원장)는 코로나19의 강풍 속에서도 진료는 물론 꾸준하게 학회 활동과 논문 발표를 통해 K-메디컬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다. 지속적인 학문적 탐구의 동력은 무엇일까.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오는 레이저 장비와 솔루션들. 환자와 의료진에게 모두 만족을 줄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을 찾는 것은 의료진의 기본 의무인데요. 이를 위해서는 기존에 발표된 논문을 면밀히 살피고, 그에 따른 연구를 통해 검증 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그의 연구가 계속되는 이유이다.

또한 기미 치료에 대한 다양한 치료 접근법에 대한 연구는 계속 진행 중이며 궁극적으로 기미 치료의 체계적인 다양식을 정립하고자 한다. 나아가 안전하고 효과적인 보톡스, 필러, 실리프팅에 필수적인 임상해부학에도 관심을 가지며 논문 준비 중이다. 다시 한번 차앤박피부과의 임상 노하우는 하루 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님을 알 수 있었다. 오늘도 그의 진료실은 늦은 시간까지 불이 켜져 있다. (끝)

